

해설프로그램 개요서

제 목	자연이 품은 역사, 용굴		
해 설 주 제	내장산의 자연과 숨겨진 역사를 알아보자.		
활 동 목 표	기록의 가치를 생각하며 역사와 자연의 중요성을 생각하자.		
해 설 재 료 (준 비 물)	리플렛, 사진, 펜	소요시간(분)	120'
유 의 사 항	가벼운 트레킹코스가 있으므로 안전산행 주의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 설 주 제	주 요 내 용	준비물 (교구재)	소요시간
도입	인사 및 일정소개	- 인사 및 일정소개	리플렛	10
주제별 해 설	내장산국립공원 소개	- 내장산국립공원 소개 - 주의사항 및 스트레칭		20
	단풍나무	- 용굴로 가는 길에 만난 자연 단풍나무	사진	30
	역사 속 용굴	- 역사적 가치 임진왜란과 용굴의 역할 조선왕조실록	사진 및 실록모형	40
	자연 속 용굴	- 지질학적 가치 호남정맥의 내장산 용굴의 암석	지도 및 암석사진	10
마무리	기록	- 기록의 가치 생각하기 - 다짐	펜	10

(사진 작업 - 굴거리/만병초 비교, 비목 (잎, 꽃, 겨울눈) 사진, 내장산 산세, 용굴, 왜구침입, 침입경로, 후보지, 위성사진, 조선왕조실록) [소책자: 엽서->느리게 가는 엽서(정음), 기록다짐 지문도장기]

1. 인사 및 일정소개

안녕하세요. 사계절이 아름답고 숨겨진 역사가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약 2시간정도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내장산에 숨겨진 역사를 함께 찾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일기를 쓰시나요? 오늘은 기록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튼튼한 몸매 건강한 정신도 갖든다고 하죠? 가벼운 트레킹코스로 1km정도 걸으면서 내장산에 숨겨진 보물도 함께 찾는 귀한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내장산국립공원 소개 및 주의사항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곳이 어디인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곳은 내장산국립공원입니다. 전국에 국립공원은 총 22개로 각 지역의 생태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립공원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 주셔서 깨끗한 자연을 보호하는데 동참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내장산하면 뭐가 떠오르니 하고 물어보면 사람의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내장산은 산세가 구불구불 양의 창자를 닮았다고 해서 내장산이라는 유래도 있지만 내내 감출장이라는 한자를 써서 산 안에 감춘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여 보물산이라는 별칭도 붙어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물산인 내장산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을 찾으러 갈 건데요, 가는 길이 평지는 아닙니다. 약간의 트레킹을 하는 코스로 돌아 꽤 있습니다. 안전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 화장실이 없으니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행 전 가볍게 자연과 함께하는 스트레칭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해가 어디 있는지 그 방향으로 양 손을 뻗어볼까요. 그리고 바닥을 향해 흔들어 주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틀고 어깨를 흔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생각한 다음 그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볼까요? 누군가는 만나게 되고, 누군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겠네요! 자 오늘 갈 방향은 바로 이쪽입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주의해야할 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니만큼 정해진 탐방로만 가시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출발해볼까요?

3. 용굴로 가는 길에 만난 자연, 단풍나무

내장산 하면 뭐니 뭐니해도 단풍이죠! 왜 내장산 단풍은 유명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단풍나무를 어디에서 주로 보셨나요? 아마 인공적으로 식재된 단풍나무를 주로 보셨을 겁니다. 단풍나무는 조금 섬세한 나무인데요. 자 그럼 퀴즈. 단풍나무는 산꼭대기, 중턱, 산 밑. 중 어디에서 제일 잘 자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정음입니다. 바로 산 밑에서 발견하기 쉬운데요. 정음은 예부터 우물 정에 고을 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가 많아 물이 많은 동네입니다. 물이 산꼭대기에서 흘러 밑으로 흐르지요? 물을 좋아하는 단풍나무는 계곡부나 산 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잘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자신에게 맞는 환경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추운 곳보다 더운 곳에서 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곳이 가장 좋지만요. 단풍나무를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내장산에는 단풍나무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 제 목표는 올라가면서 4종류를 발견하는 건데요! 다 못발견해도 여기 소책자에 내장산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조심 모두 아시죠?

제가 내장산에서 근무하고 식물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산에 있는 모든 나무 수종을 아는 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자주 눈에 익고 공부한 나무만 찾아내곤 하는데요.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돌면 까먹는 건 남녀노소불문입니다. 그 중 방금 자연 속에서 찾아낸 보물 같은 단풍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단풍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라 계곡부나 산 밑에서 발견하기 쉽다고 이야기해드렸죠. 단풍나무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꼽자면 알록달록 색이 곱다는 점. 그렇다면 퀴즈! 단풍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까요? 맞으면 O 틀리면X 손으로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단풍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정답은 X.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 까닭은 색이 다양하고 또렷하기 때문인데요. 강수량과 일조량, 비옥한 땅 덕분입니다. 척박한 땅은 건디기 어려워하지요. 또한 단풍나무는 상처를 받으면 상하기 쉬운 나무라 색도 곱고 아름다워서 유명하지만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인물 값하는 나무랄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에게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 중에서도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록수가 있고, 단풍나무처럼 떨어뜨리는 활엽수가 있지요.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갈색으로 모두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익숙함에 무더져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가곤하죠. 사랑하는 가족,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또 단풍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꺼진 불도 다시 보 듯, 안전 조심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단풍나무가 물을 좋아하고 양분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곁에 있는 나무는 단풍나무일까요 아닐까요? 내장산의 단풍이 유명한 까닭을 저는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로, 일조량이 많이 색깔이 곱고요. 두 번째로, 단풍나무 수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색깔을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죠. 절정기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다른 곳에 비해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늦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제 옆에 있는 나무는 단풍나무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모양의 단풍나무와 모양은 다르지만 단풍나무입니다. 제가 내장산의 단풍나무 수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곁에 있는 나무는

1. 신나무-
2. 고로쇠나무 -
3. 복자기나무 -

우리는 가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알고 보면 참 멋있고, 닳고 싶은 친구인데 종종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곤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신나무, 고로쇠나무, 복자기 나무도 알고 보면 모두 닳은 나무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단풍나무 사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마도 여러분 모두 단풍나무를 알고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실 것 같은 눈빛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씨앗이 모두 닳았습니다. 날개가 벌어진 각도만 다르지 모두 단풍나무 씨앗입니다. 단풍나무 씨앗은 발아가 잘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번식이 잘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씨앗을 많이 만들고, 더 멀리 보내려고 이런 모양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씨앗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들레 같은 경우는 깃털처럼 날아서 가기도 하죠? 어떤 식물은 동물의 털에 붙어 이동하기도 하고요, 맛있는 열매로 먹이가 되어 이동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번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듯 이요.

그런데,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현상, 과학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이유로 지구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에 나오는 전자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직접 움직이는 우리는 바뀌는 세상에 맞추기도 하고 변하고 있는데, 동식물에게는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은 슬프게도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멸종이 되기도 하지요. 1960년대 내장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군락이 있습니다. 바로 굴거리나무인데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올라가면서

찾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살펴보면 이런 나무입니다. 혹시 오시면서 보셨나요? 굴거리 나무는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렇다면 내장산도 따뜻하다는 이야기겠죠?

내장산국립공원은 독특한 자연환경에 있습니다. 바로 북방한계선이라는 환경인데요. 혹시 북방한계선, 들어보셨나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 즉 남방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추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을 연구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그 식물이 바로 굴거리나무였고요. 북방한계선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연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데요, 점점 날이 따뜻해지면서 북방한계선도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는 동식물의 이동이나 존재로 실감하죠.

혹시 여러분은 빠르게 변하는 시간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는 노하우가 있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보물을 찾기 위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혹시 다치신 분이나 불편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5. 역사 속의 용굴

드디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보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곳을 위해 보물찾기를 하신 게 아닐까요. 내장산을 빛나게 한 숨겨진 보물. 바로 용굴입니다. 혹시 용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그럼 가볍게 이름부터 생각해볼까요? 용굴은 용이 승천했다고 붙은 이름이지만 사실, 왕과 관련된 곳입니다. 예부터 왕과 관련된 단어는 용자가 많이 붙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용포,용상,용굴 네. 이곳은 왕을 지켜낸 곳입니다.

왕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로 돌아갑시다.

(왜구침입 사진) 1592년 4월 13일. 부산진 앞바다에 왜구가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의 풍족함과 더 높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욕심을 가진 왜의 침입. 7년간 지속될 비극적인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타난 지 불과 20일 만에 수도 한양은 점령당하고 마는데요. 그 덕에 왜구의 기세는 등등해졌습니다. 그 말은 즉 많은 백성들은 핍박받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 역시 약탈과 소실의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죠..

사실 조선 이전 고려도 많은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몽고반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진족, 말갈족, 거란족, 등등등 정말 많은 오랑캐의 침입에 괴로워했지요. 고려의 선례를 보고 조선 또한 세워질 때부터 보물과 같이 가치 있는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의 보물은 금도 은도 아니라 왕의 기록,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부르지요. 조선은 세워질 때부터 실록을 보존할 수 있는 사고를 설치했습니다. 한양의 춘추관사고를 비롯해 충주사고, 성주사고, 전주사고에 실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조선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잠깐 왜구의 침입경로를 살펴보고 갈까요?

(왜구 침입 경로 그림) 이 곳 부산진 앞바다를 시작으로, 성주, 충주, 한양, 이후 금강산을 넘어 평양까지 진출합니다. 성주, 충주, 한양. 낯설지가 않죠? 이곳은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있던 곳입니다. 이때 사고는 관리를 하기 위해 행정, 교통상의 중심지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사고가 총 4개라고 말씀해드렸죠? 왜구의 침입을 받지 않은 한 군데는 바로, 전주사고입니다.

가치가 있는 건 모두 함께, 같이 지켜야하죠. 처음에 전주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땅에 묻고 지키려고 했으나, 가장 처음 점령된 성주사고에서 이미 땅 속에 묻는 방법을 취했다가 소실되거나 약탈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주사고에 있는 실록을 지키기 위해 많은 유생들과 백성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숨기시겠어요? 자 후보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후보지사진)** 1. 배편을 이용해서 해로로 피할 수 있는 부안 변산 2. 산속이 구불구불하며 깊은 산중인 정읍 내장산. 물론 배편을 이용

해 보관하는 방법도 훌륭하지만 배편으로 약탈될 가능성이 있어 선조들은 내장산의 깊숙한 이 곳을 선택했습니다.

안내, 감출 장. 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불구불한 산 안에 무언가 감추기 좋은 내장산. 내장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신선봉 중턱에 있는,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없는 동굴.

왕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곳. 바로 용굴입니다. 전주사고를 관리하던 오희길은 은밀하게 실록을 함께 지킬 사람을 찾았습니다. 태인 유생인 안의와 손홍록인데요 낮이건 밤이건 이곳을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진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렇다면 안의와 손홍록이 옮긴 조선왕조실록의 규모는 어땠을까요? 무려 60권에 달하는데요. 건물로 따지면 4층 높이입니다. 용굴에 모두 보관 하기에는 조금 좁아 보이죠? 그래서 용굴을 포함해 내장산 내 3곳, 더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문헌상 용굴과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보관 장소 위성 사진)** 조상들이 지키려했던 조선왕조실록을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조선왕조실록모형)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2077책의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세월을 기록한 한 왕조의 기록인데요. 여기에는 정치부터 문화, 사회 심지어 백성들의 풍속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세세한지 한 구절을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 4년 2월 8일. 이렇게 실록에는 왕이 사관의 눈치를 볼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담았습니다. 그 덕에 태종은 사관에게도 먼 미래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들켰습니다. 한번은 태종이 사냥을 가는데 사관이 또 따라붙은 모양입니다. 태종이 “놀러 가는 것이니 올 필요 없다”고 하자 그 사관은 변복을 하고 쫓아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태종 이방원을 좋아해서 자꾸 태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떤 왕에게 관심이 있나요?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시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웬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기록하고 있다면 어떤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선에서 왕 노릇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죠. 무슨 말을 하던 옆에서 다 적고 있고 그것이 후대에 영원히 남는다면 어느 누가 함부로 말을 할까요.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 지금까지 이어져왔더라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관이 있었겠죠? 그것도 깨끗한

자신이 패륜적인 짓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후대에 전해져 자신의 악명이 남는다면 또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조선은 바로 이런 자세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500년 이상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는 사관의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익명성을 보장받은 것이지요. 만일 사관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면 후환이 두려워서 누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으려 할까요?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에 놀랄 따름입니다. 만약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지난 왕의 기록 또한 우리는 알지 못했겠죠? 용굴이 왕과 역사를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6. 지질학적 가치, 용굴

역사는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지만 역사만큼 재밌고 신기한 분야가 또 있죠.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기는 하지만 때려야 뭉 수 없는 과학입니다. 가까이 와서 용굴을 살펴볼까요? 단순히 돌인가요? 내장산국립공원은 호남정맥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줄기 체계를 하나의 대간과 하나의 정간, 그리고 이로부터 가지 친 13개의 정맥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내장산국립공원은 13개의 정맥 중 가장 긴 호남정맥에 해당합니다. 산은 물길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물은 산에서 갈라져 흘러나와 그 산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흘러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산과 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자연과 돌을 알아야할까요?

우리가, 나무가 뿌리내리고 사는 땅이 곧 암석의 종류와 구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산은 아주 먼 옛날, 백악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사실 단순히 화산활동뿐만 아니라 백악기 상층부의 독특한 돌이 끼어들었고 그 후 화산이 분출해 지금의 구조가 되었지요. 다 여기 돌에 쓰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자연의 기록이랄까요. 암석은 우리가 살기 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가장 원시의 자연이기에 우리는 은연중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역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고 독특한 그 곳의 습관을 만듭니다. 그것이 문화와 예술이지요. 문화, 예술이 지속되고 꾸준히 이어져온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어쩌면 자연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곧 지금의 문화이고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오래 전 화산 폭발으로 굳어진 돌이 우리의 지난 역사를 지켜냈고, 서래봉의 암석이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우리와 함께 쓰여 지고 있습니다.

7. 마무리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누군가에게 보물은 작지만 반짝이고 단단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지나간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장산이 여러분에게 드릴 보물은 ‘기록의 가치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감히 자연과 역사의 가치를 논할 순 없지만, 처음 만난 비목과 굴거리나무이 단순히 이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기록만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였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왕과 유교를 가장 큰 가치로 삼아 노령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을 수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기록, 역사.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우리는 역사성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지만 그 커피가 만들어지기 위해 거쳐 온 일련의 전체 과정은 알지 못하지요. 왜 모르는 걸까요? 아님 왜 모르고자하는 걸까요? 모르는 건 단순히 무지이지만 모르고자하는 건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모르고자 하는걸까요?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절대적으로 갈 수 없는 과거를 알아도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무겁고 무서운 사실을 알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역사를 알고자 합니다. 역사와 기록의 가치를 이해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비판하지만 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에는 투쟁, 행위는 내재 되어있지 않지요.

미국의 철학자 산타야나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비록 작심삼일의 다짐을 반복할지라도 오늘부터 꾸준히 무언가, 자신이 소중히 하는 가치, 혹은 현재를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몸에 깃든 건강한 정신이야말로 가장 나를 소중히 하고 아끼게 하는 보물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기록이라는 가치를 더해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게 한 걸음. 용굴 소책자입니다. 오늘 해설내용에 빠진 세세한 내용이 담겼고요, 마지막에 우리의 다짐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작은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용굴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다짐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뉘어드리는 엽서는 내장탐방지원센터에 있는 1년 느린 엽서입니다. 1년 후에 지금의 다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추억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이상으로 저는 내장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